

거룩하고 소중한 성(性)

흔들린 순결(I)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태어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TV,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상업적 영상물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운다는 의식 없이 학습한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3월이면 언제나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낭만적인 첫 키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절, 시간, 장소, 분위기 등을 써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발표를 시킵니다.

여학생의 절반 이상은 ‘눈 내리는 날, 가로등 불 밑에서’ 라고 말하고 남학생의 상당수는 ‘골목길’ 이라고 말합니다. 교실이 술렁술렁 거리면서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암기 과목으로 외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충격 속에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본 광고,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이 낭만적 첫 키스의 표준을 그렇게 각인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만들어져 오랫동안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기에
현실은 그만큼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모두들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주입된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구나!’ 하는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방적인 성과 사랑, 연애를 배운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이성교제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한 여학생이 쓴 고백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첫 경험은 평균적으로 20살 전후라고 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포레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고 연애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경험들이나 TV에서 보이는 20대 커플들의 모습은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이나 호기심,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1년 가까이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하면서 내가 특히 좋거나, 하고 싶다거나 그러한 만족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유지했던 것은 아마, 처음과는 서로의 관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남자 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애정도 깊어진 것 같아

서 좋았지만, 솔직하게 성관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눈치를 봐야했고, 모텔 안에서도 ‘혹시 몰래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했다.

매번 만날 때 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주 자주 이런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을 쉽게 꺼 내기는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애정 표현에 후진이란 있을 수 없다. 키스한 사이라면 손만 잡는 사이로 갈 수 없고, 잠자리를 가졌다면 키스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관계를 원하는 건, 대개 남자 쪽이므로 더 더욱 진도가 후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고민을 이해해줄 남자는 극히 드물뿐 더러, 사실 그때까지도 나는 남자 친구가 좋았다. 단지 성관계만 싫었을 뿐이라서 ‘혹시 내가 싫다고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년간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다.

어느 날 모텔에 가자는 것을 마음먹고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왜 갑자기 그러냐며 싸우게 됐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시켜봤자 소용없었다.

만약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관계를 돌리는 것은 어려우니 헤어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나 아직 성관계를 갖기 전이거나, 초기 상태인데 거절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싫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첫 경험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고, 좋았다기보다 뭔가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조금 실망스럽고 불쾌한 그런 복잡한 기분이었다. 잠깐 그 친구 집에 불일이 있어 갔지만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찌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난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몇 번이고 거부했지만 결국 그게 첫 경험이 됐다.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첫 경험은 생각해온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상상은 매체를 통해 만들어져 오랫동안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기에 현실은 그만큼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 (다음달에 계속)

이광호 베네딕도, 생명문화연구가,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위원.